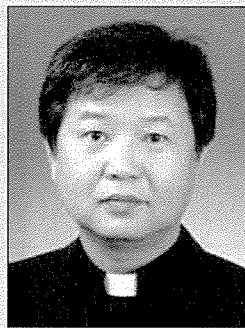


가톨릭병원의 영성 진료 현황과 발전 과제

인간은 육체,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가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의 형성을 인정 할때 영성진료의 개념은 성립한다. 건강과 질병개념은 인간 전체의 총체적 성격을 띤다. 영성진료를 포함한 '전인진료'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영성 진료, 또는 영적 진료, 영적인 돌봄이라는 말은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성 진료는 인간에게 육체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존재하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건강은 육체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안녕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병들면 나머지 두 요소들에도 영향을 끼쳐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질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암이나,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발병이나 진행에 있어 심리와 성격, 정서 등 정신 요소들과 신앙, 인생관,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 영성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의학계 내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이 승 찬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정간호센터 소장

일반 종합 병원들에 원목실이 설치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건강과 질병 개념은 인간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성 진료를 포함한 '전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스도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 왔으며, 육체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위해 힘써 왔다(야고 5, 14-15 참조). 교회의 이러한 관심과 활동은 창립자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와, 그분께서 교회에 분부하신 치유 사명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셨으며(마르 2, 1-12),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앓는 사람을 고쳐 줄 것을 명하셨다(마태 5, 7-8). 예수께서는 환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심으로써 인간이 본래 누리고 있던 온전한 건강 상태

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제자들도 환자들을 돌볼 것을 분부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영혼의 치유를 포함한 '전인 치유'를 지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영적인 돌봄, 영성 진료를 수행해 왔다. 이처럼 교회에 있어 영성 진료의 취지와 내용은 예로부터 낯선 것이 아니었다.

환자를 돌보는 형태와 제도가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것처럼 교회의 영성 진료 모습도 변화해 왔다. 초기 교회에서는 원로들이 환자에 대한 도유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치유 활동을 수행했다면(야고 5, 14 참조), 중세 시기부터 근대에 병원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지역 교회의 본당 신부들이 환자 방문과 성사 집전 등 환자의 영적 치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소 등 의료 기관이 제도로서 자리잡은 1920년대 이후에야 교회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사목을 전담하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원목자들은 입원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는 주된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원목 활동은 지역 교회의 본당 신부들이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환자 방문과 기도, 성사 집전에 머물렀다. 단순한 방문과 기도, 전례 거행만으로는 환자의 영적인 고통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원목자들은 환자 사목을 위해 전문 지식을 쌓는 등 자신들이 좀 더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25년 여름 미국 메사추세츠의 우스터 주립 정신병원에서 이 병원의 원목이었던 앤톤 보이즌(Anton Boisen)과 하버드 대학교 임상 의학 교수였던 리처드 캐봇(Richard C. Cabot), 의사였던 윌리엄 켈러(William S. Keller)에 의해 4명의 개신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사목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주

교회는
창립초기부터 영혼의
자유를 포함한
정인의 치유를
지향해
영적인 돌봄,
영성진료를 수행...

: 임상사목교육 과정은 교훈적이고 인지적이며 연역적인 전통적 신학 교육 방식과는 반대로 귀납적이고 경험적이며 임상적이다. 또한 이 교육 과정은 피교육자들이 환자들과 더 깊은 동료 의식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피교육자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임상사목교육은 피교육자의 내적·외적 세계의 연결,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연결, 이론과 실천의 연결, 심리학과 신학의 연결을 꾀하고 있다.)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수료생들에게 원목자 자격을 주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에는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원목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 교육은 1960-1970년대 초에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의 서 요셉 신부에 의해 명동 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임상사목교육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치유 활동은 명실공히 '영성 진료'로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과 독일의 영성 진료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우리 나라 가톨릭병원의 영성 진료 현황을 비교·분석한 후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미국과 독일의 영성 진료 현황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치유 활동이 '진료'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임상사목교육을 통해 원목자들이 전문성을 추구하면서부터다. 이 교육을 통해 원목자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환자의 심리와 영적인 상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론과 실습을 통해 환자의 영적인 건강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법들을 익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교육 이수 후 자

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원목자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화함으로써, 병원 내 다른 직군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치유 활동, 다시 말해 원목 활동에도 전문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료진 및 다른 직군들과 보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내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원목자도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목자의 직무 내용이 표준화, 지표화됨에 따라 원목 활동에도 의료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에서 원목자의 영적 치유 활동은 명실공히 '영적 진료'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국처럼 원목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임상사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 주교회의는 이러한 자격 교육이 권장 수준을 넘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처럼 원목 활동에 대해 의료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교회의와 개별 교구 차원에서 병원 사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원목자의 직무와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 주교회의는 원목자가 자기 업무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 및 간호사와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정기적으로 의료팀 대화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독일의 원목자들도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명확히 규명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영적 진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겠다.

II. 우리 나라 가톨릭병원의

영성 진료 현황

1936년 5월 경성 천주교 유지 재단이 성모병원을 개원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가톨릭병원이 우리 나라에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오늘에

원목자들 스스로
원목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목자들은
직무에 대한
공통된 인식 하에
직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직무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가톨릭병원들이 국가 의료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병원에서 수행되어 온 원목 활동은 가톨릭병원으로서의 특성과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가톨릭계 종합 병원에는 대부분 원목을 전담하는 성직자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어도 원목 전담 수도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 원목자들은 교회에 맡겨진 치유 사명과 성직자, 수도자로서의 개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들 원목자들은 교구나 수도회로부터 자신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 없이 병원에 파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원목자로 파견되기 이전에 임상사목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원목자가 자신의 직무를 파악하고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원목자는 교회와 병원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조직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우리 나라 가톨릭 교회의 원목자들은 아직도 직무에 대한 지침이나 전문 교육 없이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취임 직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목자의 취임 초기에 바람직한 영적 치유 활동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 나라 가톨릭병원에서 임상사목교육이 시행된 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임상사목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수퍼바이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원목 활동의 전문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나마 현재 활동 중인 원목자들 대다수가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발적으로 임상사목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

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주교회의나 개별 교구, 수도회 차원의 병원 사목에 관한 직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고 있는 원목 활동 내용도 병원별,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원목자들 사이에도 원목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목이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내 다른 직군들로부터 그들과 대등한 전문 직군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가톨릭병원에서의 원목 활동이 명실상부한 '영성 진료'로 인식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 하겠다.

III. 우리 나라 영성 진료 발전을 위한 과제

환자에 대한 교회의 영적 치유 활동에 있어 미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의 가톨릭 원목 활동이 '영성 진료'로 전문화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발전 과제는 이미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병원 사목 직무에 대한 주교회의 차원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병원 사목에 관한 교회 장상들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고, 병원 사목 직무에 대한 장상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원목 현장에서도 세부적인 공통 직무 기술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원목 직무 내용을 표준화, 지표화하는 일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목자들 스스로 원목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목자들은 직무에 대한 공통된 인식 하에 직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직무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원목팀들은 현재 원목 직무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

임상사목교육을 주관하는 기관과 수퍼바이저의 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들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인함으로써, 원목자 자격증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고 있다.

셋째, 임상사목교육을 주관하는 기관과 수퍼바이저의 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들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인함으로써, 원목자 자격증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임상사목교육을 이수한 준비된 사람만을 원목자로 파견함으로써, 직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원목 직무 내용의 표준화와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 제고를 통해 획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군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팀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환자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나눔으로써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원목 직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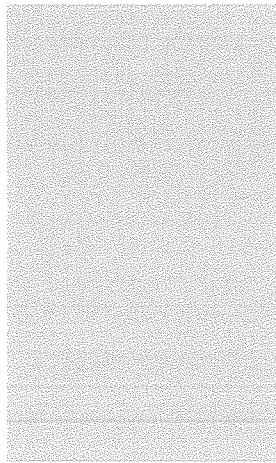
맺는 말

이상에서 환자에 대한 우리 나라 가톨릭 교회의 영적 치유 활동, 곧 원목 활동의 현황과 발전 과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원목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치유 사명에 근거하는 것이며, 영혼까지 치유하신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행위라 하겠다. 오늘날 원목 활동이 환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목자 스스로 그에 합당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전례를 거행하는 능력과 행위를 넘어, 환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개별 진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은 임상사목교육과 같은 전문 교육을 통해 배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

교육은 원목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통된 이해와 인식이 마련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교회 장상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

▶ 35p에서 이어짐

세 번째 완성의 단계는 현실적인 관계에 대한 적응의 문제이기보다는 본래적인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여 근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 단계이다. 집착에서 현실관계로 옮겨오는 것은



상당과 심리치료의 과정이라면 현실관계를 뛰어넘는 길은 명상의 기술이 요청된다. 하지만 불교명상은 현실관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건강한 성품을 철저하게 경험함으로써 발생된다. 이것은 결코 현실관계를 부인하는 초월의 방식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의 단순한 적응관계도 아니다. 내적 본성의 완성은 내재적 초월, 혹은 초월된 내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 TIP

청 계 천

2005년 10대 히트상품 선정 결과

순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	청계천	싸이월드	디지털포토	월드컵
2	경제서적 '블루오션전략'	복합기능휴대폰	로또	컬러휴대폰
3	위성 DMB폰	비타500	신가전	메이드인차이나
4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한류스타(온사마)	웰빙상품	주상복합아파트
5	이종격투기 K-1	대용량 MP3	퓨전사극	홈시어터
6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금순이, 삼순이, 맹순이)	자가화장품	재테크서적	영어학습
7	카트라이더	파리의 연인	수입차	테이크 아웃점
8	내비게이션	마법천지문	지하철신문	변형명품(짜통)
9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주택장기대출	지식검색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10	블로그	매운 음식	이민상품	한방제품
기타	요가, 반신욕, 소형SUV, 드라마 '이순신', 현대카드(CF송), ipod, 초슬림휴대폰, 블랙컬러휴대폰, 브랜드아파트,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은나노용품, 녹차음료 등			

성별 선정 결과 비교

순위 응답자	남 성	여 성
1	청계천	청계천
2	경제경영서적 '블루오션전략'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3	이종격투기 K-1	요가
4	위성 DMB폰	경제경영서적 '블루오션전략'
5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6	카트라이더	위성 DMB폰
7	역적녀 주인공 TV드라마	반신욕
8	내비게이션	카트라이더
9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블로그
10	블로그	웰컴 투 동막골

주 : 굵은 표시부분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상품
자료제공 : 삼성경제연구소

